대학생 불자 "新 신행 프로그램 원해요"

청년대학생전법단 '2019 청년불자 종교의식' 발표

불교동아리 회원 505명 설문조사
회원 44% 무종교 · 타종교인
불교 · 스님 인식 대부분 '긍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44%가 무종교인이거나 이웃종교인이며 이들중 상당수가 불교개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교교리 및 철학공부에 회원 63%가 긍정의사를 밝혔으며,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신행프로그램 개발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9청년불자들의 종교의식과 신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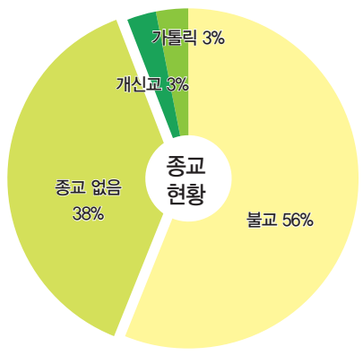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는 대불련을 중심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5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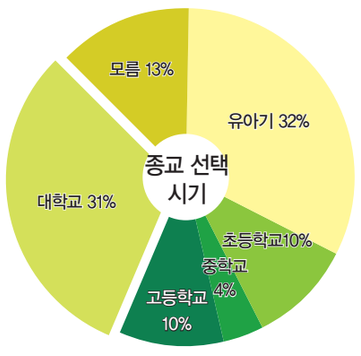
무종교인 중 63% 불교 입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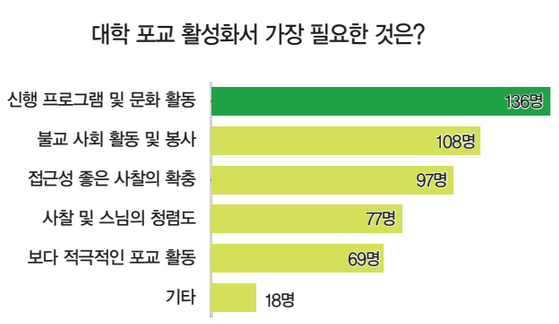
이번 조사 대상인 505명 중 38%인 193명이 무종교인이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신자도 각각 3%인 13명씩 조사됐다. 종교가 있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선택시기 조사에서는 유아기가 32%인 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시기도 96명으로 31%에 달했다.

특히 종교가 있는 불교동아리 회원 중 종교별 종교선택시기에 대한 세부조사에서 불자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많은 33%가 대학교 시절을 꼽았다. 불자인 불교동아리 회원 과반 이상(55%)이 사춘기 이후 종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경우 대부분은 불교 개종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무종교인 193명 중 63%인 121명이 불교 개종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인 동아리 회원 총 26명 중 8명도 개종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법회 요구↑, 교리철학 교육 선호

불교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정기법회와 스님과의 대화가 각각 249명, 116명의 응답자로 1,2위로 꼽혔다. 이밖에 템플스테이(106명), 연등축제(100명)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불교교리 및 철학을 교육받지 않은 이가 43%인 217명에 달했다. 불자가 아닌 회원들이 많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교 교리 및 철학을 배우고 싶은 의향은 긍정의향이 80%인 401명에 달했다. 불교교리 및 철학을 배우고 싶으나 주저하는 이유로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이 첫 번째로 꼽혔으며(182명), 가르쳐주는 곳이 없고(100명) 내용이 어려워서(87명)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불교동아리 회원인 만큼 불교 이지미는 대체로 긍정적이 었다. 불교 이미지가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매우그렇다(164명)와 그렇다(268명) 등 긍정의사가 86%에 달했으며, 스님들의 이미지 또한 72%가, 사찰 및 불교단체 이미지는 70%가 긍정의사를 밝혔다.

불교로 마음안정, 신행프로그램 필요

이들 54.3%인 274명이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은 마음의 안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되어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대학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행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의 개발이었다.

전체 회원 중 26.9%인 136명이 새로운 신행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밖에 불교사회활동과 봉사가 21.4%인 108명, 접근성 좋은 사찰 확충은 19.2%인 97명이 응답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를 접하는 계기서 가족 또는 친지의 영향이 183명로 1위를 차지했으며, 스스로의 관심이 80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불교동아리 주 가입경로 또한 스스로 참여한 부분이 288명으로 57%에 달했다. 스스로 판단하여 개인수행 등 필요에 따라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는 만큼 대학포교 활성화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9명으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조용석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학 불교동아리가 청년포교에 있어서 중요한 창구역할을 함을 재입증한 것"이라며 "동아리 회원들의 열의에 맞춰 새로운 신행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활동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불교계 축제 잇단 취소

삼랑성 · 남한산성 의승군 축제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점차 확산되면서 불교계가 주관하는 문화축제가 잇달아 취소됐다.

먼저 오는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9월 25일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강화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올해 '공존'을 주제로 역사강좌와 가을음악회, 역대조사 다례재, 호국영령 영산대재, 남사당 놀이, 만해 한용운 마당극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9월 24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화에서 발병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했다.

경기 광주 장경사도 10월 12일 장경사와 남한산성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제8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취소했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강남 한복판 '명상물결' 흐른다

한국명상총협회, 10월 5일 강남페스티벌 대미 장식

서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을 대표하는 길이자 젊은이들의 문화가 숨쉬는 이곳에서 명상의 가치를 대중에게 전하는 명상축제가 열린다.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최하는 2019강남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가로수길 천연잔디에서 '강남한류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통불교 수행법인 참선을 비롯해 요가명상, 피트니스명상, 선무도명상 등 다양한 명상 시연과 체험이 2000여 대중을 상대로 펼쳐진다.

이번 명상 페스티벌에서는 세계명상수행승 각산 스님의 명상법에 대한 강의와 실참을 시작으로, 인도 모디총리의 요가스승인 나겐드라 비베카 요가의 한국대표인 비베카 킴의 요가명상, 김수미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장의 바디케어 명상, 채의걸 선무도 강남 명상요가센터 대표의 선무도 시범이 진행된다.

한국명상총협회는 명상을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누구나 명상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다양한 명상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명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여간다는 게 협회 측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인재양성 25년… 50회 맞은 화엄장학회

603명에게 총 3억천만원 지원

고양 금륜사(주지 본각) 화엄장학회가 인재양성 발원 25년을 맞아 9월 22일 50번째 장학금을 비구니와 학인, 일반학생들에게 수여했다. 1995년 인재양성을 발원하며 구성된 화엄장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학기에 맞춰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50회 장학금은 7명의 비구니 · 학인 스님과 대학원생, 초 · 중 · 고교생 8명에게 총 1110만원이 지급됐다. 누적장학생 603명, 누적장학금만 3억7925만원이다.

화엄장학회는 1995년 3월 당시 중앙승가대 보타사 주지와 비구니수행관장을 맡고 있던 본각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어려서부터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매진해온 본각 스님은 학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다 장학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학인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취지에 도반과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졌다.

초기 비구니 학인을 위해 시작된 화엄장학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넓혔으며, 본각 스님과 인연을 맺은 권오향 보살이 희사한 1억 원으로 '오향장학금'을 마련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각 스님은 "많은 분들의 십시일반으로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장학회의 곳간이 비었던 적은 없었다"며 "모든 것은 불자님들의 공덕"이라고 장학회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태국 · 부탄 인류무형유산, 한국서 선뵌다

국립무형유산원, 10월 4~5일 공연 · 컨퍼런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태국과 부탄의 전통 가면연희가 한국에서 선보인다.

전주 소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태국 · 부탄의 전통 가면연희 종목을 초청해 공연과 컨퍼런스 등을 선보이는 '신(神)들의 춤, 아시아의 가면연희'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에 초청되는 태국의 '콘(Khon)'과 부탄의 '다메체(Drametse) 가면북춤'은 모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목이다. 이들 모두 태국과 부탄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두 나라 왕실을 중심으로 보호 ·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태국 · 부탄 문화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태국문화부국립예술단과 부탄왕립공연예술원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10월 4일 오후 7시에는 태국의 '콘'이 관람객들을 처음 만난다. 태국의 '콘'은 인도문화권의 라마야나(Ramayana) 신화를 태국판 건국설화 라마키엔(Ramakien)으로 극화한 가면극이다. 궁정 예술의 숙련된 기예와 화려한 의상, 정교한 가면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전투하는 모습 등은 매우 흥미롭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태국의 전통 가면연희 콘의 한 장면.

10월 5일 오후 2시에는 부탄의 '다메체의 가면북춤' 공연이 펼쳐진다. 이는 불교축제 기간 중에 연행되던 탈춤 군무로, 동부 다메체 지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부탄 전역에서 연행되는 민중 가면춤이다. 공연과 국제컨퍼런스는 전석 무료(8세 이상 관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공연 열흘 전인 9월 24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과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063)280-1500, 1501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